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

열풍 정도가 아니다. 알파고 앞에서 북...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중이...

종교칼럼



양홍 사경교회 협동목사

은 세상에 부활의 열기가 일고 산아에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속명의...

기고



박향이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 조경자원팀장

“혹시 철학자들이 만든 가든스쿨, 가든...

최근 지인으로부터 난데없는 질문을...

그리스에는 세 개의 유명 사립학교가...

에피쿠로스는 실제로 자신이 세운 이...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알파고와의 대국이 불공정하다고?

언론에 나온 딥러닝이라는 단어는 강...

어실프고 선정적인 인공지능의 인간...

하지만 알파고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부활절을 맞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

안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탄식하며...

먹고 살기 위한 근심, 질병으로 인한 괴...

이런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은 왔습니...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속명의...

빛고를 시민정원사가 되어 보실래요?

가든을 만들어 매일 학생들과 식물을...

차제에 우리 아이들의 강의를 정원...

자금은 학교교을 명상숲이라고 부르...

가로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때 수천 개...

정말로 단독 컴퓨터이여야 한다면,...

1997년에 세계 체스챔피언을 꺾은...

부활절을 맞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

그런데 썩은 밑알에서 새싹이 돌아나고...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사랑하는 이를...

죄에 매인 육체가 고통의 멍에 아래...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은 상실된 인격...

개발이므로, 특정 하드웨어 구축의...

결론적으로, CPU 하나를 사용해야 한...

결과적으로 구글에겐 환상적인 마케팅...

불변한 심정에 머물러 아니라, 알파고...

부활절을 맞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

두 썩어 냄새 나는 부패 속에서 새 혁신...

불의가 공의를 못 봐야 죽이려는 시대...

독재의 권력 구조 밑에서 매장된 인권...

죄와 사망이 의(義)와 생명을 결단코...

社說

새누리당 공천 파열음 야권엔 좋은 기회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비박...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공천 갑...

집권당에서 들려오는 공천 파열음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중국 구룡자동차 투자 유치에 거는 기대

중국 완성차 업체인 구룡자동차가...

구룡자동차 측은 올해부터 100~200...

이런 구룡자동차 투자 유치는 일자...

다. 새누리당이 계파 싸움에 몰두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협력을 내팽개치...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부활절을 맞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

리 창출과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자동...

사실 우리 지역의 미래는 자동차 산...

따라서 시는 이번 MOU 체결이 전...

無等鼓

소설을 읽다 보면 작가들의 상상력...

소설의 첫 배경은 2061년 5월의 지구...

마찬가지다. 멀티백은 '자료 부족으로...

10조 년이 흘러 우주의 사멸을 눈앞...

우주로 돌아갈 수는 없...

우주는 소멸했지만 초공간에 속은 AC...

AC는 의식을 집중해 말한다. "빛이...

자기가 되실까? 빛을 볼 수 있는지를...

Table with 2 columns: 광주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